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과 일본문학의 역할*

-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의 문학적 반응을 중심으로 -

조미경**
cho9631cho@naver.com

<目次>

1. 서론
2.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진재문학
3.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과 재난의 문학적 형상화
4.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전쟁의 기억
5. 결론

主題語: 한신·아와지 대지진(the Great Hanshin-Awaji Literature of Earthquake Disaster), 재난문학(Literature of Disaster),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Collection of poems;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일본 현대문학자(Modern Japanese Writer), 문학의 역할(Role of Literature), 재해와 문학(Disaster and Literature)

1. 서론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과 대규모 쓰나미(津波), 이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 사고는 일본에서 1945년 패전 이후 가장 커다란 재난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이 일련의 재난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들 거대재난의 영향은 문학 방면에도 파급되어, 이들 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를 형상화한 대량의 문학 창작이 이루어졌으며, ‘진재(震災)문학’이라는 문학 내 비평용어¹⁾가 만들어져 논의될 정도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본의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당한 지역으로 확산된 이 거대 재난은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이 처음은 아니었다. 일본의 근대기 이후만을 보아도 1896년 동북부 지역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373)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1) 정병호(2012)「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發)문학>의 논의와 전개」『저팬 리뷰 2012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도서출판 문, pp.308-327 참고.

의 메이지 산리쿠(三陸)지진과 거대 쓰나미, 1923년 도쿄(東京)와 요코하마(横浜)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대지진, 1933년 쇼와 산리쿠지진, 1995년 1월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과 연관하여 다량의 문학작품이 창작되고 또한 다양한 문학현상이 일어났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핵(核)문제는 1945년 8월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의 원자탄 투하 이후, 피폭의 참상을 그린 이른바 ‘원폭(原爆)문학’,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문학 등,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기 이후만 한정하여도 일본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문학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핵’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재난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문학 연구는 주로 간토대지진과 최근의 3.11 동일본대지진 관련 재난문학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간토대지진은 “신감각파”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²⁾ 오다기리 스스무(小田切進)연구를 비롯하여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한편, 3.11 동일본대지진의 경우도 “진재(震災)문학론”³⁾을 제기한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 3.11 이후 초기 진재문학 및 원전(原発)소설을 분석한 사이토 다마키(斎藤環)⁴⁾의 비평 등 다수의 평론이 쓰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가형의 일련의 논문⁵⁾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고가 보인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거대 국가 재난과 문학의 관계, 그리고 재난에 대한 문학의 역할과 대응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과 이들 재난 문학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새벽에 진도 7.3의 규모로 일어난 대지진으로 오사카 지역,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한 효고현(兵庫縣) 지역, 아와지시마(淡路島), 교토(京都) 지역에 이르기까지 6,000여명의 인명피해와 4만 명 이상의 부상을 초래하

2) 小田切進(1965)『昭和文学の成立』勁草書房, p.46

3) 高橋源一郎(2011.11)『恋する原発』講談社, p.199. 이외에도 일본 내에서도 三好行雄(1976)『地震と文学—関東大震災をめぐる』『東京大学公開講座 地震』 등 다수의 간토대지진 관련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지형(2005.1)『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1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91-114 등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4) 斎藤環(2012.2)『“フクシマ”、あるいは被災した時間(第五回)―換喩化のドライブ・2』『新潮』제109권 第2号, pp.247-249

5) 최가형(2013.2)『3.11 동일본대지진(3.11 東日本大震災) 이후 일본진재문학(震災文学)에서의 교토(京都) 표상』『일어일문학』제5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65-377

최가형(2015.4)『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진재문학 속 비틀즈』『일본문화연구』제5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95-311

6) 近藤健史(2014.2)『3.11と宮澤賢治とやなせたかし—雨ニモマケズと「アンパンマンのマーチ」』『일어일문학』제61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9-333

김태경 외(2014.9)『3.11 동일본대지진재와 문학』『세계문학비교연구』제48집, 세계문학비교학회, pp.73-91

였으며 ‘간토(関東)대지진’과 ‘3.11 동일본대지진’ 다음으로 큰 피해를 남긴 대규모의 국가 재난이었다. 이 대지진은 단지 인명피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삶의 근저를 이루는 라이프라인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수십만 개 이상에 이르는 건물의 붕괴와 화재 등으로 인해 3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 피난민을 위한 피난소의 문제, 가설주택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거대 국가재난에 직면하여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일본 문학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예를 들면, 아트·에이드·고베(アート・エイド・神戸)에서는 한신·아와지대지진 3개월 후에 간행된 156편의 진혼시를 모은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詩集・阪神淡路大震災, 詩画工房, 1995.4)을 간행하였다. 작가이자 정치가인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는 지진 피해지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그 경험에 토대하여 일기형식의 르포르타주 문학인 『고베진재일기(神戸震災日記)』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297명의 시인·가인·하이진이 모여 단카(短歌), 하이쿠(俳句), 시(詩), 수필을 수록한 한신·아와지대지진 관련 시가집인 『비상과 진혼』(悲傷と鎮魂—阪神大震災を詠む, 朝日出版社, 1995.4)도 간행되었다. 이 외에도 오다 마코토(小田実)는 사회비판적 소설인 『깊은 소리』(深い音, 新潮社, 2002.6)를,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는 미스터리 소설인 『환야』(幻夜, 集英社, 2004.1)를,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新潮社, 2000.2)를 통해 한신·아와지대지진을 모티브로 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신·아와지대지진은 재난 규모에 있어서도 간토대지진이나 3.11 동일본대지진 다음 가는 거대 재난이었고 이들 재난을 모티브로 한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위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문학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 일본의 재난문학연구는 간토대지진과 3.11 동일본대지진 관련 문학에 집중되어 있고 한신·아와지대지진 관련 문학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당시 가장 먼저 156명 시인들의 문학적인 반응을 엮은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을 통해 이러한 거대 재난에 대해 일본의 시인들은 어떠한 행동과 인식을 취하였는지, 나아가 그들은 재난에 대해 문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과 같은 커다란 국가재난에

7) 한신·아와지대지진 관련 재난문학 연구로는 마에다 준(前田潤)(2006.12) 「『危機』の表象と『私』—田中康夫の震災ボランティア日記を手がかりに」 『立教大学日本文学』97, 마쓰에 마코토(松枝誠)(2010.3) 「震災以後の村上春樹」 『昭和文学研究』60, 요시다 나가히로(吉田永宏) 「阪神・淡路大震災と文学・文学者(1-3)」 『関西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48・49・51, 2004.1・8, 2005.9)의 논고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논문도 주로 진재와 관련된 개별작가의 태도에 한정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대해 문학(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일본 재난문학 연구를 한신·아와지대지진 관련 문학으로 확장하여 일본 재난문학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진재문학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신·아와지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이들 대지진의 참상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문학’이 창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문학’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들 대지진의 참상과 슬픔, 그리고 복구의 희망, 향토와 지역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한신·아와지대지진’의 상처를 위로하고자 의식적으로 ‘진재문학’을 간행한 쪽은 시문학 분야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297명의 시인·가인·하이진은 단카(短歌), 하이쿠(俳句), 시(詩), 수필을 수록한 한신·아와지대지진 관련 시가집인 『비상과 진혼』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재일코리안 시인인 노진용(盧進容)은 1995년 7월에 진혼시를 모아 『붉은 달(赤い月)』을 간행하는데 이 시집은 “재일시인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지진의 의미를 탐색하고 호소하며, 외치고 싶었”⁸⁾던 내용을 모아 기획·출판한 것이다.

한편, 아트·에이드·고베(アート・エイド・神戸)에서는 한신·아와지대지진 3개월 후에 간행된 156편의 진혼시를 모은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詩集・阪神淡路大震災, 詩画工房, 1995.4)을 가이분도(海文堂)서점에서 간행하였다. 아트·에이드·고베는 위의 시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부르고 생각 외로 판을 거듭하는 결과”⁹⁾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 재차 129명의 시를 모아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 제2집』(詩集・阪神淡路大震災第2集, 詩画工房, 1996.1)을 간행하게 된다. 한편 1997년 1월에는 대지진 2주년을 맞이하여 “아픔과 슬픔의 기억”, 나아가 “시민”들의 “자립의 길”¹⁰⁾을 담아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 제3집』(詩集・阪神淡路大震災 第3集)으로서 129명의 시인들이 참여하여 『부흥을 향한 악보(復興への譜)』(詩画工房, 1997.1)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아트·에이드·고베’에서는 이렇게 연이어 세 번에 걸쳐 ‘진재시집’을 간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 제2집』에 나와 있는 다음

8) 黒田清(1995.7)「詩人の叫び」盧進容『赤い月』学習研究社、p.108

이 진재 시집은 한신·아와지대지진과 관련한 사진과 그의 일본어시를 게재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특이한 시집이다.

9) アートエイド・神戸(1996.1)『詩集・阪神淡路大震災』第2集、詩画工房、p.278

10) アートエイド・神戸(1997.1)『詩集・阪神淡路大震災 第3集 復興への譜』詩画工房、p.279

설명을 보도록 한다.

고베(神戸) 등 피해지의 예술문화부흥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자 출발한 <아트·에이드·고베> 운동은 수많은 식자의 주목을 모으고 찬동과 강력한 원조를 받았으며 선의의 고리를 크게 확대하였다. 자선 미술전으로 시작하여 벽화 캠페인, 자선 음악회, 진재시집의 간행과 그 낭독회 등 시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활력과 혜택을 초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과 이 활동에 찬동·응원해 주신 분들에 의해 기부된 기금은 피해 아티스트 60명에 대한 의연금, 피해지에서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20수회)에 대한 조성금, 기타노초(北野町) 이진칸(異人館)의 구제금 등에 지출되고 예술과 문화부흥을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하였다.¹¹⁾

이글은 이 두 번째 진재시집을 간행하면서 아트·에이드·고베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세다 시로(伊勢田史郎)의 글이다. 이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아트·에이드·고베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5년 2월 18일, 커다란 재난 속에서 ‘문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아트’, ‘에이드’, ‘고베’라는 말 속에 고베 문화를 예술가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는 결의와 예술가 자신도 고베의 부흥을 위해 힘을 결집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여, 예술가 긴급지원, 벽화(壁畵) 캠페인, 3권에 이르는 진재(震災)시집의 간행, 시화집(詩畵集) 간행,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한 자선 공연 실시, 가설 주택에 사는 주민의 미술전·음악회 초대, 이 재난으로부터 탄생한 예술의 발신, 예술문화 활동의 지원과 원조, 예술관련 각종 심포지엄의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¹²⁾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고 2002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대지진 7주년을 맞아 아트·에이드·고베는 7년간의 활동을 마쳤지만, 이들 단체의 경험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아트·에이드·동북(東北)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하였으며 한신·아와지대지진 당시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였다.

사실 이러한 거대 자연재난을 맞이하여 당시 문학자들은 문학이 이러한 재난에 대해 어떤

11) 伊勢田史郎(1996.1)「鎮魂と再生のために」アートエイド・神戸『詩集・阪神淡路大震災 第2集』詩画工房、p.276

12) 「「アート・エイド・神戸」の7年」

이 ‘아트·에이드·고베’는 위원장으로 고베(神戸)예술문화회의의 의장이었던 시인 이세다 시로(伊勢田史郎), 부위원장으로 화가인 나카니시 (中西勝)、고베상선(神戸商船)대학 교수이자 음악평론가인 이노우에 가즈오(井上和雄), 위원으로 미술평론가인 이토 마코토(伊藤誠), 작곡가인 나카니시 (中西寛), 우메다 나카코(梅田奈加子)가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 예를 들면, 한신·아와지대지진을 경험하고 “대진재는 취미적 문학 따위를 완전히 부수어 버린다. // 사소한 것만 써 왔다. / 사소한 것 따위 모두 그날 아침부터 / 무너진 커다란 도시에 깔렸다.”¹³⁾고 말하는 시인 무기 아사오(麦朝夫)의 시에서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이 압도적인 거대 재난 앞에서 문학의 기능과 역할은 정말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고 지금까지 읊어온 시들은 이 재난 앞에서는 무능한 주제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장난치지마, 이런 알팍한, 쾌활한 투의 소설로 무엇을 알아?”¹⁴⁾라고 요시모토 바나나가 쓴 『스위트 히어에프터(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의 후기를 통해서도 읽어 낼 수 있다.

거대한 지진과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작가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문학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시에는 자연재해와 원전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문학자들은 ‘부흥서점 Revival & Survival’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모았으며, 멀리 메이지 산리쿠(三陸) 대지진시에도 피해 의연금을 모집하기 위해 모리 오가이(森鷗外),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등 당대 최고 작가들이 함께 작품집을 내기도 하였다.

물론 한신·아와지대지진이나 3.11동일본대지진 때 작가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거나 의연금 모금을 위해 작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와는 좀 다르지만, ‘아트·에이드·고베’의 문화적 활동도 이러한 인식 속에서 출발한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메이지 산리쿠대지진, 간토대지진, 한신아와지대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모든 대재난 당시에도 그랬듯이 소설이나 시, 나아가 단가, 하이쿠 등의 장르를 통해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재난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과 재난의 문학적 형상화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1923년 간토대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한신·아와지대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문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여 문화인의 자발적

13) 麦朝夫「背中が震える」、p.21

14) よしもとばなな(2011.11)『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幻冬舎、p.156

요시모토 바나나는 실제 있었던 비참한 사건을 앞에 두고 소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성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런 형태의 소설 창작을 통해 문학이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도감, 나아가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트·에이드·‘고베’라는 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간행된 진재시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이 거대지진을 통해 시인들은 무엇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형상화하고자 한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이 시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의 이미지는 이 거대지진이 남긴 현장의 참상과 파괴된 도시의 모습, 그리고 이들 재난에 대한 공포를 적나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옥도 건축물도 교량도 / 도괴하고 파멸하고 불타오르고 / 아버지참의 생지옥 홍련(紅蓮)지옥 / 매스 미디어의 영상에 흐르는 /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양상의 가지가지”¹⁵⁾라고 노래한 「한신대진재(阪神大震災)」라는 타이틀의 시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옥이나 교량, 도시 자체가 파괴되고 화염에 불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참의 생지옥을 보고 그 비참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 시들은 주로 대지진이 일어난 현장의 모습과 절망, 피난소를 찾아 헤매는 믿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¹⁶⁾,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이 경과한 후, “피난소”를 “비참한 별세계”¹⁷⁾로 형상화하고 있는 시들, 지진으로 인한 부모의 죽음과 어제까지 단란한 가정을 잃은 고아들의 모습¹⁸⁾, 지진으로 죽은 자들을 그리워 하는 심정¹⁹⁾ 등 다기에 걸쳐 지진의 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대재해 이후 재해의 두려움과 절망적인 현장의 모습,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피해와 남은 자들의 슬픔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신·아와지대지진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전하는 시인들의 자세는 “우리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쓴 여러 자료를 모아 ‘천재(天災)’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후대에 남길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적어도 전하고 싶다”²⁰⁾라며 이러한 거대재난을 작품화하여 이러한 작품을 후대를 위해 기록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시무라 구니히로(志村有弘)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인 사에키 가즈미(佐伯一麦)의 「히요리아마(日和山)」라는 작품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록으로서 재난문학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²¹⁾

15) 渡辺一司「阪神大震災」、p.26

16) “도괴한 가옥이 가로막는 균열의 도로를 피해 / 사람들은 피난의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다 / (중략) 믿을 수 없는 현실의 그 가혹한 정경은 / 백주몽처럼 어슴프레한 윤곽으로 희미하게 보이고”(三浦照子「揺らぐ朝」、p.49)

17) 小川正巳「序詞」、p.62

18) “눈물이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 행방불명의 부모는 / 설마 도괴한 와력(瓦礫)의 아래에 있으리라고는 / (중략) 일순간에 양친을 잃고 / 고아가 된 아이들 103명”(土橋義信「大震災 父母は骨になった」、p.20)

19) “진재 후 49일 / 죽은 Y씨를 그리워한다 / 아름다운 웃는 얼굴의 사람이었다.”(加川洋子「三月」、p.66)

20) 志村有弘編(2011.7)「はじめに」『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pp.3-4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재난시집은 단순히 지진 당시의 현장을 그리고 도시의 파괴나 참상을 전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시인들은 이러한 공포를 경험하고 파괴된 도시를 목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문명에 대한 회의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거리가 일그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불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다.

(중략)

과연 문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도가 지나치지 않았다

고 한다면 거짓이 된다.²²⁾

「기도(祈り)」라는 제목의 이 시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리와 가옥의 붕괴, 화재 발생과 사람들의 희생 장면을 그리고 있지만, 이들 재난의 이면을 통해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도가 지나쳤”음을 지적하면서 인간문명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인간의 문명을 지적하는 소리는 단지 이 시에 그치지 않고 “지구여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인가 / 그렇게 괴로웠던가 / (중략) 머리가 유난히 큰 인간이 자신 본위로 / 과도하게 욕망을 부린 것도 인정한다”²³⁾라는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신·아와지대지진이 자연재해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시인들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현대의 거대 도시문명으로 대표되는, 인간 본위의 과도한 욕망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는 한신·아와지대지진이 고베와 오사카로 대변되는 거대도시의 재난이며 나아가 이 도시 속의 건물과 거리의 붕괴, 화재, 이로 인한 엄청난 사상자의 발생을 목도한 결과이기도 하다.²⁴⁾

21) 이에 대해서는 조미경(2014)「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 -진재(震災)·원전(原電)문학집『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1) 참조

22) 山内龍「祈り」、p.9

23) 大川ひろ子「地球よ怒らないで」한국일본근대학회, p.167

24) 이러한 사실과 연관 지어 볼 때, “지금 그 인간의 / 산과 같이 솟은 욕망의 마천루와 함께 / 허망하게 잠드는 거대도시를 / 결국 모두는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읊조리고”(古田豊治「この手は、誰の……?」、p.86)라는 시도 거대도시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인간의 욕망과 관련 지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전쟁 포기를 맹세했지만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는
 병참기지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흘린 피를 빨아
 토실토실 살쥔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인공 섬을 만들어 오로지
 욕망의 도시를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일순간에 하나의 도시가
 땅속에서 격렬하게 흔들려
 콘크리트 거리를 파괴했다.
 바다를 메운 토지와 산을 깎은 단지가
 맨 먼저 함몰하여
 무너져 내렸다.²⁵⁾

이렇게 문명과 자연,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자연을 대비시켜 한신·아와지대지진을 보려는 자세는 위의 시와 같이 당시 도시문명의 역사성에까지 이르게 된다. 즉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패전 이후 표면적으로는 ‘전쟁포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이웃나라의 전쟁을 통해 일본이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도시의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번의 대지진으로 인해 이렇게 구축된 도시가 붕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문명 / 자연, 인간의 욕망 / 자연을 뛰어넘어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도시문명의 역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신·아와지대지진을 통해 반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재난과 문명비평에 대한 깊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거대한 자연재해, 도시와 문명의 파괴, 삶의 기반의 붕괴, 공포를 통해 일본의 현대 시인들은 위와 같이 인간 욕망과 현대 도시문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노래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인간 본위의 과도한 욕망과 연관하여 한신·아와지대지진을 읊었던 「지구여 화내지 말기(地球よ怒らないで)」이란 시에서는 “저 먼 곳에서 구원의 뜨거운 마음이 손과 발이 / 모이고 있다 / (중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 피해(被災)를 당한 분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싶다”라고

25) 栗原貞子「崩れぬ都市を」、p.169

끝을 맺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대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여드는 따뜻한 손길의 의미를 잊지 않고, 나아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살아 있음의 기쁨 / 서로 돕는 강인함에 / 오천여 분들이 사라진 미래를 결집하여 / 아름다운 도시 고베는 지금 세 번째의 부흥으로 일어난다.²⁶⁾
- ② 그렇지만 고베는 버틴다 버틸 것이다 / 무례한 젊은이 폭주하는 소년의 / 숨겨져 있었던 다정한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다 / 냉정과 질서를 지탱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이기 시작했다 // 영국 방송은 / 고베란 신의 출입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보아라 / 출입구에는 벌써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²⁷⁾
- ③ 상처받은 고베에 / 계속 살아 가는 것 / 나에게 가능한 것은 그뿐 / 아아 고베 /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는 / 생각지도 못했다.²⁸⁾
- ④ 어머니는 말합니다. / “함내자꾸나”/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짓밟힌 듯한 / 거리에 서서 언젠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 나는 기다리련다²⁹⁾

이들 시들은 모두 무너지고 파괴된 비일상적인 풍경 속에서도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①과 ②는 모두 비참한 재난에 즈음하여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 무례해 보였던 젊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자 한 시이다. 한편, ③의 시는 이러한 거대한 재난을 맞이하고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고베)에 대한 애정을 재발견하는 자신의 의식, ④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짓밟힌 듯한 도시를 보고 다시 기운을 내어 버티어야 한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측면에서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단순히 거대재난을 당한 고베와 오사카의 비참한 현실과 붕괴된 삶의 기반을 기록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연재난으로 무너진

26) 小林正子「瓦礫」、p.30

27) 杉山平一「一月一七日 曉闇」、p.8

28) 佐土原夏江「想い」、p.85

29) 豊原清明「三ノ宮」、p.100

30)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에서 새로운 희망과 사랑, 상호부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복구와 부흥 의지, 자신이 사는 지역과 고향에 대한 애착을 노래한 시로는 이외에도 「비둘기여!」(ハトよ!)(和田英子, p.52), 「대합창(大合唱)」(細谷俊文, p.55), 「노래하지 않으면…」(うたわなければ…)(井上潔子, p.56), 「재생(再生—蘇れ、母なる港)」(鈴木漠, p.76), 「재생(再生)」(望月宏三郎, p.81), 「부흥(復興)」(佐土原夏江, p.85), 「사십구일째(四十九日め)」(白川淑, p.89) 등 다수의 시가 존재한다.

삶의 기반을 목도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온 문명과 도시,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반성적으로 포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다시 노래하고 부흥을 향해가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과 고향에 대한 깊이 있는 애착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자 하였다.

4.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전쟁의 기억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신·아와지대지진이 일어나고 3개월만에 간행된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의 시들은 대도시 고베와 오사카 일대를 강타하였던 이 대지진의 풍경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형상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의 ‘재난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고속도로가 두절되고 가스나 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수많은 피난민을 초래하며 대도시를 강타한 이 대재난의 참상을 마치 전쟁이나 전쟁터의 형상과 클로즈업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①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우리들 마을을 습격한

50년만의 전쟁.³¹⁾

② 교통마비, 타버린 별판, 피난자의 텐트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마스크

블루중에 룩색

멋진 고베는 지금 패전의 풍경³²⁾

위에서 인용한 첫 번째 시는 1995년 1월 17일 새벽에 일어난 한신·아와지대지진과 그 지진으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 화재, 건물과 교통시설의 파괴를 “우리들 마을을 습격한 / 50년만의 전쟁”이라는 시어가 잘 지칭하듯이 태평양전쟁 당시 빈번하게 있었던 공습의 형상, 아니면 전쟁의 형상에 빗대어 그리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고 고급스런 현대도시를 자랑하던 고베의 모습, 나아가 파괴된 도시의 형상을 마치 50년 전 “패전의 풍경”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시와 같은 모티브를 취하고 있다.³³⁾

31) 安水稔和「神戸 五十年目の戦争」、p.92

32) 渋谷江美「阪神大震災」、p.104

그렇다고 한다면, 대지진이라는 자연재난과 도시파괴, 피난자의 발생을 ‘전쟁’ 특히 일본이 구체적으로 경험하였던 전쟁과 연상하여 상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이유는 “대진재 후 니시노미야진자(西宮神社)”에서 “수십기의 석등롱(石燈籠)이 쓰러져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신(阪神)대공습 때에는 / 무명 전사 생환자처럼 / 참배 길 양쪽에 / 수줍게도 / 단단히 서 있었다.”³⁴⁾라는 「생환(生還)」이라는 시에서 보듯이 태평양전쟁 당시 오사카-고베 지역 대공습 때보다 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대재난을 보고 바로 전쟁을 연상했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장에서 10미터 차이가 / 폭탄으로부터 나를 구했다. / 한신대지진은 1000미터 거리가 / 생과 사를 나누었다.”고 전쟁과 대지진을 비교하면서 “전쟁의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 아무렇지도 않아.”³⁵⁾라는 시는 전쟁의 연상이 사뭇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전쟁의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의 자연재난과 도시파괴의 충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연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형 지진이 거의 없었던 간사이(關西)지역의 일본인에게 한신·아와지대 지진이란 그들이 그 이전에 경험하였던 태평양전쟁이나 공습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연상될 수 없었던 대재난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간사이지역의 피해(被災) 문학자들은 50년 전 전쟁과 현재의 거대 재난은 일련의 시간적 계보 속에서 동일한 충격, 공포와 슬픔, 나아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주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70년의 흐름 동안 와력(瓦礫)이 세 번
(중략)
첫 번째는 1938년의 한신(阪神) 대수해
(중략)
두 번째는 전재(戰災)
어젯밤의 공습으로 근무처 은행도 재난을 당하고
금고를 꺼안고 야외 영업을 시작했지만
눈앞의 방공호에서 병사가 수용하는 유체로
중국 분과 일본인의 앓는 방식의 차이를 안다.
한큐 산노미야(阪急三宮) 빌딩 주변에 이상한 냄새가 가득 차 있다.

33) 한편 이러한 대지진이 남긴 상흔 속에 문학 기능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노래한 麦朝夫「背中が震える」에서도 “전쟁이 있고 55년 살아서 / 익숙해 온 사소한 일”(p.21)이라는 식으로 전쟁과 당시의 재난을 동시에 상기하고 있다.

34) 谷田寿郎「生還」、p.47

35) 明樂四三「悲しみの音」、p.23

(중략)

그리고 세 번째 한신대지진³⁶⁾

시인 고바야시 마사코(小林正子)에게 있어서 1938년의 한신대수해,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의 공습, 그리고 1995년의 한신대지진은 도시와 거리에 수많은 와력(瓦礫)의 산더미를 만들고 도시를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당시 경험했던 공습과 1995년의 대지진은 많은 사상자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나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해 도시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동렬의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시인들이 한신대지진을 보고 태평양전쟁 당시 공습을 연상하며, 그 두 사건을 동렬의 이미지로 포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피해의 강도나 공포의 이미지가 단순히 닮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사카와 고베의 대지진을 경험하고 다시 과거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다음의 시에서 보듯이 일본문명의 비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고베는 대지진이 닥친 적은 없다)

일본은 가미카제(神風)가 불어 반드시 이겼다.

(롯데산<六甲山>의 화강암은 견고하므로 대지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음식이 없을 때도

배가 고파도 나라를 위해 힘쓰라고 격려하였다.

(효고 남부 대지진 이후 한참 식량이 끊겨 버렸다.)

패전 후 아이들을 두 번 다시 전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맹세해 왔다.

(직하형 단층지진으로 재차 소개<疏開>활동을 만들었다.)³⁷⁾

이 시에서 고베의 대지진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1945년 3월 17일 고베시 중서부를 습격한 대공습”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점은 앞의 시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효고남부 대진재(兵庫南部大震災) MEMO」라는 시는 두 사건이 초래한 충격과 피해 정도의 유사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전쟁과 대지진이 일본의 치부, 나아가 일본문명의 허구성이 그대로 드러

36) 小林正子「瓦礫」、p.30

37) 玉本格「兵庫南部大震災 MEMO」、p.68

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즉, “1945년 3월 17일 / 고베시 중·서부를 덮친 대공습”과 “1995년 1월 17일 / 아와지·한신의 직하형(直下型) 단층대지진”로 고무공장이 거대 와력(瓦礫)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유추하는 곳에서는 두 사건은 피해의 유사성과 강도라는 점에서 공통의 기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내에서 선전되었던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 대지진과 관련하여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베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재난에 대한 대비 부족, 이로 인해 대지진의 피해가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부족을 야기하거나 어린 소학교 학생들을 소개(疏開)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 시인은 마치 전쟁당시 일본인들에게 허언과 잘못된 선전을 일삼았던 당시의 정치구조를 1995년의 일본사회와 함께 클로즈업시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신·아와지대지진 당시 이 대재난의 대응을 둘러싸고 시인은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1995년 1월에 일본의 고베와 오사카 등을 강타한 한신·아와지대지진은 1923년 간토대지진, 1945년 태평양전쟁과 패전 다음으로 엄청난 피해와 인명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피난소와 가설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트·에이드·고베’라는 단체에 의해 기획, 간행된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재난의 ‘진혼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거대재난을 휩싸인 고베와 오사카의 재난 현황과 피해자들의 공포와 슬픔, 그리고 비참한 현실과 붕괴된 삶의 기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혼시’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에서 당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던 시인들은 그러한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문명과 도시, 그리고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 온 인간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재생과 부흥을 향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자신들이 사는 지역과 고향에 대한 애정의 마음도 동시에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이라는 진재시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대지진의 참상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들이 경험하였던 전쟁의 양상과 클로즈업시켜 보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대지진의 처참한 광경을 전쟁의 폐허와 비교해 보고자 하는 시도, 나아가 간사이 지역의 피해(被災) 문학자들은 50년 전 전쟁과 현재의 거대 재난은 일련의 시간적 계보 속에서 동일한 충격, 공포와 슬픔, 나아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주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의식, 나아가 그러나 전쟁의 부정적 이미지와 1995년 일본 현대문명의 부정적 현상을 동렬에 두고 일본현대사회를 더불어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 등이 산재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지진을 통해 획득된 비판의식은 “그날부터 수라장(修羅場) 속에서 우뚝 솟아 / 패닉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 것은 / 모두 각층의 시민들이었다 / 국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지금도 피난소의 차가운 바닥은 /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거점인 채로이다.”³⁸⁾라는 시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습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는 이 거대지진의 경험이 과거 역사 속으로 소급되어 “1995년 1월 17일의 동트기 전 / 1923년에도 간토(關東)에서 / 이보다도 훨씬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 / 그 때는 조선인을 발견하는 대로 /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 몇 만이라는 동포가 학살되어 갔다 / 지진 후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 조선인이 불을 붙이고 다녔다고 생각한 듯하다 /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 이번의 지진은 증명했을 것이다”³⁹⁾라는 이미지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간토대지진 이후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학살의 기억이 이 한신대지진으로 다시 환기되어 재일코리안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당시 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시집으로서 “진혼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도시 문명이라는 문맥이나 이 사태를 일본의 근대 역사 속에 위치지움으로써 일본의 현대문명과 역사성을 되묻는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바로 이점으로 인해 이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이 가지는 진재문학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参考文献】

アートエイド・神戸(1995)『詩集・阪神淡路大震災 第2集』詩画工房

杉山平一「一月一七日 曙闇」、p.8 / 山内龍「祈り」、p.9 / 土橋義信「大震災 父母は骨になった」、p.20 / 麦朝夫「背中が震える」、p.21 / 明楽四三「悲しみの音」、p.23 / 渡辺一司「阪神大震災」、p.26 / 小林正子「瓦礫」、p.30 / 谷田寿郎「生還」、p.47 / 三浦照子「揺らく朝」、p.49 / 和田英子「ハトよ!」、p.52 / 細谷俊文「大合唱」、p.55 / 井上潔子「うたわなければ...」、p.56 / 児玉勅願

38) 児玉勅願「阪神・淡路大震災ノート」、p.59

39) 鄭承博「阪神大震災」、p.160

- 「阪神・淡路大震災ノート」、p.59 / 小川正巳「序詞」、p. 62 / 加川洋子「三月」、p.66 / 玉本格「兵庫南部大震災 MEMO」、p.68 / 鈴木漠「再生—蘇れ、母なる港」、p.76 / 望月宏三郎「再生」、p.81 / 佐土原夏江「復興」、p.85 / 佐土原夏江「想い」、p.85 / 古田豊治「この手は、誰の……?」、p.86 / 白川淑「四十九日め」、p.89 / 安水稔和「神戸 五十年目の戦争」、p.92 / 豊原清明「三ノ宮」、p.100 / 渋谷江美「阪神大震災」、p.104 / 鄭承博「阪神大震災」、p.160 / 大川ひろ子「地球よ怒らないで」、p.167 / 栗原貞子「崩れぬ都市を」、p.169
- _____(1996)『詩集・阪神淡路大震災 第2集』詩画工房、p.278
- _____(1997)『詩集・阪神淡路大震災 第3集 復興への譜』詩画工房、p.279
- 伊勢田史郎(1996)「鎮魂と再生のために」アートエイド・神戸『詩集・阪神淡路大震災第2集』詩画工房、p.276
- 小田切進(1965)『昭和文学の成立』勁草書房、p.46
- 黒田清(1995)「詩人の叫び」盧進容「赤い月」学習研究社、p.108
- 斎藤環(2012)「“フクシマ”、あるいは被災した時間(第五回)-換喩化のドライブ・2」『新潮』第109巻 第2号、pp.247-249
- 志村有弘編(2011)「はじめに」『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pp.3-4
- 高橋原一郎(2011)『恋する原発』講談社、p.199
- 前田潤(2006)「危機」の表象と「私」—田中康夫の震災ボランティア日記を手がかりに『立教大学日本文学』97
- 松枝誠(2010)「震災以後の村上春樹」『昭和文学研究』60
- 三好行雄(1976)「地震と文学—関東大震災をめぐる」『東京大学公開講座 地震』
- 吉田永宏(2004.1・8, 2005.9)「阪神・淡路大震災と文学・文学者(1-3)」『関西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48・49・51
- よしもとばなな(2011)『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幻冬舎、pp.156-157
- 近藤健史(2014)「3.11と宮澤賢治とやなせたかし—「雨ニモマケズ」と「アンパンマンのマーチ」」『일어일문학』제61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9-333
- 김태경 외(2014)「3.11 동일본대진재와 문학」『세계문학비교연구』제48집, 세계문학비교학회, pp.73-91
- 이지형(2005)「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1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91-114
- 정병호(2012)「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発)문학>의 논의와 전개」『저팬리뷰』2012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도서출판 문, pp.308-327
- 조미경(2014)「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진재(震災)·원전(原発)문학집『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1
- 최가형(2013)「3.11 동일본대지진(3.11 東日本大震災) 이후 일본진재문학(震災文学)에서의 교토(京都) 표상」『일어일문학』제5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65-377
- _____(2014)「3.11 동일본대지진과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가미사마 2011(神様2011)』」『일본학보』제98집, 한국일본학회, pp.301-314
- _____(2015)「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진재문학 속 비틀즈」『일본문화연구』제5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95-311

논문투고일 : 2017년 07월 05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1일
 2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17일

<要旨>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과 일본문학의 역할

-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의 문학적 반응을 중심으로 -

조미경

이 논문은 1995년 1월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이 자연재난을 형상화한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詩集・阪神淡路大震災)』을 대상으로 하여 이 한신·아와지대지진에 대해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체계적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문학자들이 이 시집을 간행하게 된 배경은 물론, 이러한 거대재난과 일본현대문학의 관련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한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였다.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여 자발적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트·에이드·고베’라는 단체에 의해 기획, 간행된 시집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은 거대재난의 ‘진혼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거대재난을 당한 고베와 오사카의 재난 현황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공포, 그리고 비참한 현실과 붕괴된 삶의 기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시집의 ‘진혼사’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이라는 시집에 참여한 시인들은 당시의 재난상황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문명과 도시, 그리고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 온 인간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재생과 부흥을 향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자신들이 사는 지역과 고향에 대한 애정의 마음도 동시에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집·한신아와지대지진』이라는 진재시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대지진의 현상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들이 경험하였던 전쟁의 양상과 클로즈업시켜 보려고 했다는 점이다.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in 1995 and Role of Japanese Literature

- The Literary Response of “Collection of poems;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

Cho, Mee-Kyoung

This paper focuses on the “Collection of poems;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詩集・阪神淡路大震災)”, which symbolizes this natural disaster since the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in January 1995. So, I systematically analyzed how modern Japanese writers perceived and responded to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Through these insights, I have searched for the function and role of literature on these disaster situation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backgrounds of the Japanese writers’ publishing this poetry, as well as the related ways of these huge disasters and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The “Collection of poems;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was planned by the group ‘Art, Aid, Kobe’ which was created as a result of voluntary movement aiming at ‘revival of culture’ in a short time after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In this sense, “Collection of poems;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poem of repose of souls” of a great disaster. This can be seen in characteristics of this poetry in terms of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disaster situation of Kobe and Osaka, the grief and fear of the victims, the disastrous reality and the collapsed life base. However, poets who participated in this poetry not only depict the disaster situation of the time, but also critically depicted the civilization, city, and human desire that has created human civilization. And then poets sang hope of the future in this desperate reality. They sought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the victims who were trying to regenerate and revive, as well as the affection for their area and hometown. The greatest feature of this poetry is that the phenomenon of the great earthquake was to close up with the aspect of the war that the Japanese experienced during the Pacific War.